

##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

이 호 영\* · 김 상 돈\*\*

## A Study on Activa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through Community Network

- Focusing on Theory of Community Network -

Ho-Yong Lee\* · Sang-Don Kim\*\*

**요약** :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교육환경변화로 인해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영위하는 학습활동과 이를 포괄하는 총체적 교육시대 즉 평생교육시대가 돌입됐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본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협조하고 협력하는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자체역량 및 고유성, 자율과 자치, 상호협력과 조정, 다양성, 의사소통 등과 같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민간기업, 지역주민간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간의 긴밀한 연결 망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주민, 민간기업을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자간 네트워크 활성화는 인적자원개발에 매우 중요한 촉매작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인 지역네트워크는 교육기관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된 주체간의 네트워킹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성화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 민간기업,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평생교육기관의 대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평생교육,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ifelong education activation in the Community through network approach. Since modern society is informationized, globalized and urbanized, community dwellers feel constrained to receive lifelong education. This study employs the concepts from community network for improving the living qua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human capital in community.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suggests the tri-combined lifelong education system which consists of school education, private organization and the community

\* 경기대학교 다중매체학부 정치매체관리전공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Political Media Management, Multimedia Art, Kyonggi University)

\*\* 경기대학교 강사(Lecturer, Kyonggi University)

residents through the community network. In order to activate lifelong education through community network, this study suggests the credit bank system for Bachelor's Degree, science park, continuing education center, education in the company, lifelong learning city.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community network, institutionalization

## I.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교육환경변화로 인해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영위하는 학습활동과 이를 포괄하는 총체적 교육시대 즉 평생교육시대가 돌입됐다. 이러한 배경요인은 정보화, 전 지구화, 지방화 등에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정보기술혁명으로 초래된 생산양식의 변화, 즉 정보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의 당위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보화는 정보기술 발달로 초래된 파급효과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측면의 소프트화를 의미한다. 정보화의 심화는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조직과 개인,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지식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킨다. 지식사회의 중요한 생산요소는 자본 및 노동보다는 오히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지식능력 중심의 인적자산을 중요시한다. 다음으로 전 지구화(globalization)의 도전으로 초래된 국가경쟁력의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

로서 평생교육의 당위성을 모색할 수 있다. 전 지구화란 정보, 기술, 자본, 생산, 문화 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여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는 물적자본 중심의 경쟁력은 더 이상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지방화란 국민국가성립이후 지속된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도되는 각 지방의 자율과 분권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화의 심화는 교육권력의 분권화, 사회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에 부가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적 열망을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교육적 열망은 주민들의 교육수준과 고용창출은 물론 인적자원 개발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환경변화로 인해 비롯된 교육패러다임은 행위자간의 평생교육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위자간의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연결망을 통한 평생교육은 상호규제적이고 조정적이며 협력적인 관계에서 수행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현대사회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인 평생교육과 지역네트워크의 이론과 구조를 전개한 후 당위성과 효용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 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현대 교육 환경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 II. 평생교육과 지역네트워크

### 1. 평생교육의 의의

#### 1) 평생교육의 범위와 영역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평생교육의 창시자인 Lengrand(1970: 25~37)은 현대사회의 급진적 변화와 인구의 증대, 과학기술 발달,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도전, 매스컴 발달과 정보급증, 여가증대,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상실, 이데올로기의 위기 등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는 교육원리로서 시간의 축과 장소의 축을 통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주장하였다. Dave(1973)는 평생교육을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비형식적·무 형식적 학습활동<sup>1)</sup>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운실(1990)은 교육개념의 광역성과 통합성,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향상성, 교육대상의 평등성과 전체성, 교육접근 방식의 다양성과 상대성, 그리고 교육체제의 개방성과 탈정형성이라 하였다. 황종건(1992)

은 평생교육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삼위일체적 교육통합론이라 하였다. 한편, 장진호(1985: 104)는 평생교육을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모색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인간화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특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engrand, 1970: Dave, 1973: 19~20: 홍기형 외, 2001: 24; 김종서외, 2000: 17~28). 첫째, 평생교육은 개인적 차원 및 사회공동체 차원을 포괄하는 통합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통합성은 다시 수직적 통합성과 수평적 통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통합성은 인간발달의 각 단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반면 수평적 통합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통합을 의미한다.

둘째,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과 자유로운 참여를 전제로 한다. 평생교육은 외부의 강제성이나 어떤 의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는 곧 학습자 중심의 학습과 맥락을 같이한다. 학습자 스스로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해야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교육의 전 과정에 학습자가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평생교육은 학습자들의 삶의 질 향상

1)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은 학교내지는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위나 증서를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을 의미한다.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은 형식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교회, 도서관, 텔레비전, 신문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일상생활 세계 속에서의 학습을 의미한다. 반면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은 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의 중간의 형식을 갖춘 교육으로 문화센터나 지역사회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을 추구한다.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동시에 평생교육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교육기회 균등화와 확대에도 기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탈정형성의 특성을 갖는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연령, 교육장소, 교육과정, 교수방법, 평가 등 그 어떤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청소년, 노동자, 주부, 노인 등 그 대상이 다양하며, 교육장소도 도서관, 교회, 공원, 관공서 등 그 어느 곳이라도 인정되며, 교육내용은 인간의 모든 국면을 다룰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 개념과 관련지어 평생교육의 영역은 대상과 교육시설이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대상별, 기능별, 기관별로 분류하고자 한다(홍기형 외, 2001: 97). 연령별 분류는 취학전 교육, 청소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으로 나뉘어지며, 대상별 유형은 여성교육, 농어민교육, 노동자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능별 분류는 가정교육, 문해(文解)교육, 직업훈련교육, 대중매체교육, 지역평생교육 등으로 나뉘어지며, 교육실시기관별 분류는 학교형태교육, 준 학교 형태교육, 공공 및 민간단체중심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평생교육은 분절되고 분화되어 있는 교육영역들을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시·공간적으로 통합하는 교육 즉 인간의 일상생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 2) 평생교육체계 구축의 필요성

평생교육은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학교교육의 한계, 고령화 사회,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각 부문들이 복잡하게 되고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함에 따라 전통적 교육기관인 학교는 현대 교육환경에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 대학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학교를 졸업 후 자격취득이나 직장내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의 인적자원개발은 학교 밖의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넷째, 사회와 정부는 학교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학교교육은 인적자원을 적기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하여 지역별·개인별 특성에 맞게 양성해서 전국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의 인적자원개발 체제는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한계를 배태(embedding)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교육패러다임인 평생교육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Conle, 1957: 84). 따라서 전체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율도 역시 급속도로 고연령화되고 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58.8%로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50~64세 인구는 18.4%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비교적 젊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2020년에 50~64세 인구는 33%에 달하게 될 뿐만 아니라(장지연 외, 2002: 2), 65세 이상의 노인이 1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김봉익, 2002: 6). 이와 같이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과거 고도성장기간 동안 향유해 온 노동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은 낮은 실업률, 대기업부문의 장기고용관행 등과 같은 평생직장의식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와 그 과정에서 초래된 고 실업시대, 불안정한 고용구조, 비 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를 맞이하면서 평생직업시대가 도래했다. 평생직업은 종신고용·연공서열제 등의 개념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도록 했으며, 대신 'I Brand'로 승부하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평생직업의식을 요구하고 있다(정광섭·김상돈, 2000).

위와 같은 배경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것과 동시에 지식정보의 발전 또는 변화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적절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방안으로 지역사회적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의 활용이다.

## 2. 지역네트워크의 이론과 활성화

### 1) 지역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

현대사회는 정치, 행정, 경제,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화된다.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사회현상 분석의 시도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역시 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네트워크란 국가간, 지역사회간, 개인간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면서 시간, 공간, 비용의 경계를 초월한 행위자간 연결을 의미한다. 즉 각 행위자들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핵심역량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소유한 희소자원을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로 작용된다. 따라서 지역네트워크란 지역내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이나 생산 과정 및 기술·지식의 창출, 도입, 활용, 수정, 확산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지역내 연결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역네트워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첫째, 지역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행위자간 상호의존도가 높고 파트너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파트너십은 행위자들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네트워크는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보다는 성찰적 합리성(reflexive rationality)이 강조

되기 때문에 상호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Jessop, 1998: 29-46). 이것은 선진적인 주민 의식을 통하여 주민자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를 증대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주민참여는 공공성에 대한 비판정신과 참여정신 등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하고 주민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하다.

둘째, 지역네트워크는 주민참여와 공공성이 강화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활성화되어 주민권리가 고양된다. 주민권리는 환경·문화·사회문제 등에 참여할 권리 즉 공동체 업무에 참여할 권리, 정보를 공유할 권리 등으로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도입함으로써 효과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형 조직은 균형을 중시하고 생산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셋째, 지역네트워크는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self-organizing network)의 특성을 지닌다.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는 자율적인 조직이 창조적으로 자기변화를 지속해간다(박상필, 2002: 426). 이것은 조직의 다양한 가치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가치의 재정립 기회를 마련해준다.

결국, 지역네트워크는 구성요소와 구조, 그리고 환경간의 상호작용에서 분석될 수 있다. 지역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요소는 배태된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며, 행위자들은 자신이 배태되어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네트워크 분석은 지역사회의 구조와 행위자간 연계 및 의사소통흐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의 측면에서는 특정한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적 체계와 문화적·규범적 체계에 배태되어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2)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관련 변수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네트워크를 '지역사회의 행위자간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한다면 논리적으로 평생교육의 활성화 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일례로 '행위자간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지역주민, 지방정부, 학교, 민간기업을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행위자로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행위자를 평생교육 활성화의 변수라 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주민은 단순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 혹은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학습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인식은 학교교육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역주민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참여는 학교교육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주체의 동반자로서 교육서비스의 수혜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교육서비스 활동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주민과 학교,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각 행위자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학교나 민간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에 직·간접적인 재원지원이나 시설을 지원한다.

셋째, 교육기관은 주민의 평생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추적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인적 자원개발시대, 지식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삶의 터로 존재해야 한다. 특히 대학교육 기관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고도로 전문화된 인적자원과 다양한 교육시설 및 첨단교육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기능,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역시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민간기업은 열린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의 열린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을 자사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인 구조를 극복하여 다른 고등교육기관 및 인근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지역주민에게까지 개방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 봉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평생교육의 활성화 구축을 위한 핵심적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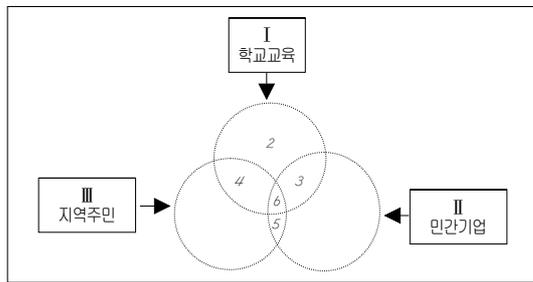
그 외 각종 시민단체, 종교기관 및 복지기관 간 관계를 확장하고 이들과 입체적인 지역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3. 연구의 분석틀

이제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역네트

워크를 통한 평생교육의 행위자는 학교·지역 주민·민간 기업간 네트워크로 나타낼 수 있다. 지역주민은 교육서비스 수혜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주체로서 평생교육 행위가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민간기업의 영역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나 일정한 영역내에서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한다. 반면 학교교육은 지역주민전체를 대상으로 거시적으로 활동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거시적 차원과 지역주민과 민간 기업의 미시적 차원을 엮어주는 연결망을 통한 교육서비스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방향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분석틀은 구체적 분석개념을 제시한 지역네트워크의 구성요소들을 발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각각의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제설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분석의 처방성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둘러싼 행위자간의 연계관계를 의미하는 지역네트워크의 구성요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의 구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교육 주체인 대학교(I영역)를 정점으로 지역주민(II영역), 민간 기업(III영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지역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 학교간 관계(2), 학교와 민간기업간 관계(3), 학교와 지역주민간 관계(4), 지역주민과 민간기업간 관계(5) 및 다자간 관계(6)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Ⅲ.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 1. 학교간 관계

학교간 관계는 모든 형태·수준의 학교단위 간에 발생하는 활동 혹은 상호작용체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개념의 학교간 관계는 대학간, 대학원간, 그리고 전공간의 연계를 통해 대학의 특성화 작업을 실시하여 전공부문별 비교우위를 가진 대학과 대학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동 학습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간 관계의 대표적인 유형은 학점상호인정제와 학점은행제를 들 수 있다. 학점 상호인정제는 일차적으로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공식적 자격 인정의 절차를 위하여 요청되는 제도이다. 학점상호인정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미시간대학의 Study Abroad 프로그램이다(University of Michigan Bulletin, 1996~1997).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미시간대학과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자매결연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특히 학생들이 외국의 대학에서 취득해 온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획득된 성적이 미시간 대학의 학점 누계평균(G. P. A)에 산입된다.

한편 학점 은행제란 모든 구성원이 원하는 교육을 활성화된 학교교육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이나 개인의 자기주도학습<sup>2)</sup> 등을 통해 폭넓게 이수한 학습 결과를 학점이나 학위 또는 자격 등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홍기형 외, 2001: 220). 그 모범적인 예는 뉴질랜드의 국가자격인정제(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의 도입과 운영이다. NQF는 모든 유형의 학습을 포괄하며, 기능·이해·태도·가치를 인정하고, 이수학점은 영속적, 누계적으로 기록·보존되며, 다양한 학습자들의 요구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위기준결합에 따라 다양한 과정과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인에게 개방된 제도로서 접근기회에 대한 장벽을 최소화하고 이전의 학습을 인정받는 제도로써 국내·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이희수, 1998: 86~87).

#### 2. 학교와 민간기업간 관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 민간기업간 관계의 당위성은 최근 교육환경이 다양화 및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지능화·고도

2) 자기주도학습이란 개인 스스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결정하고, 학습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 시행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대학의 연구기능과 기업의 생산기능을 연계시키는 일에 초점을 부여하는 과학공원(science park)이 대표적 유형이다.

과학공원은 대학의 부지나 시설에 기초한 것으로 학교와 기업간 연계를 통해 인적자본의 접근가능성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기업들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학교와의 협동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기업은 대학의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인적자본개발로 연결된다. 따라서 과학공원의 효과로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 지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모, 외부로부터의 첨단산업 유치,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sup>3)</sup> 예컨대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에서의 스탠포드대학과 캘리포니아대학 그리고 동부루트(Route) 128의 MIT, 리서치 트라이앵글(RPT)의 듀크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및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은 첨단기술개발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광희, 2000: 237).

### 3. 학교와 지역주민간 관계

학교와 지역주민간 관계의 모범적인 유형은

미국의 Community College와 일본의 縣民大學을 들 수 있다.

Community College는 평생교육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다. Community College의 성인교육프로그램은 지역적인 특성과 그 대학의 전통적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학점을 이수하려는 정규학생을 포함한 그 지역의 성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최항석, 2000: 185~186). 반면 일본에서는 고등성인교육의 학습기회확대와 학습네트워크 창조에 중점을 두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의 평생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민 대학이다. 현민대학은 전통적인 사회교육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지사부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포괄한 사회교육이다. 특히 현민대학은 다양화·고도화된 지역주민의 학습요구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사회교육의 하나의 방향으로 한층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각 도도부현에 조직된 현민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학습기회를 체계화·종합화하였다는 점이다(文部省生涯學習局生涯學習振興課, 1994: 17~32). 일례로 시즈오카현에서 1996년에 개설된 현민대학은 학습사회를 촉진하고 사회교육에서 학습성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다양화하고 있다.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양과정은 현, 시·군·면, 대학, 민

3)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형태는 창업보육센터이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한지 1년 이내의 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사업장, 기술 및 경영지도, 각종 정보, 투자 및 연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기술 인력에게 기술개발에서 창업, 사업화까지 종합적인 창업보육 지원을 실시해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실용사업 연구분위기 조성 및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창업 촉진, 사업성공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산업기술 기반의 확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오덕성 & Masser, 1998: 45).

간교육기관, 전수학교, 각종학교의 사회교육강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각 강좌에 공통학점을 설정하여 어디에서 배워도 그 실적에 상응한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 4. 민간기업과 지역주민간 관계

민간기업과 지역주민간 협력 네트워크의 예로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들 수 있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보람과 긍지를 극대화하며, 여가선용과 교양함양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구축된 시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계의 유형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Mall of America, 일본의 북부아동미래정보기지를 들 수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에 있는 미국최대의 쇼핑센터인 Mall of America에 학습장이 개설되었다. 이 쇼핑몰은 최대의 쇼핑센터이면서 시민의 오락장이고, 주차장을 포함해 1km이상의 거대한 3층 건물이며 수백개의 점포, 백화점, 유원지가 들어있다. 이 학습장의 교육방향은 다문화적 학습환경, 평생학습기회, 부모의 학습참가,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수업평가, 개별화된 학습계획과 성과의 획득을 지향하고 있다. 중심적인 사업은 중등교육코스, 생활직업코스, global connection 코스, 비즈니스

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생활직업 코스는 쇼핑몰내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여 각각의 직업내용을 학습하게 함과 동시에 장래의 직업선택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비즈니스 코스는 팀을 구성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생산모델개발이나 대출신청서 작성요령 등 다양한 실천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학습한다.

일본의 북부아동미래정보기지는 1999년 8월에 개설했으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CSN(community support net)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한다는 목표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조직으로서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지역공헌을 목표로 한 NPO(Non-Profit Organization)<sup>4)</sup>적인 회사이다. 이 기관은 life support 부문과 전문기술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지역주민문제를 지원하고 있고, 후자는 지역주민의 경력 및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을 제공한다.

#### 5. 다자간 관계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관계에 부가하여 다자간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다자간 관계의 모범적인 사례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를 들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 만들기관 지역사회단위로 평생학습체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생

4)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non-profit seeking)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준공공(semi-public) 및 민간(private)조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이윤동기에 의하지 않으면서 배분금지계약(non-distribution constraint)을 받는, 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모든 법인 및 비법인을 포함한다(Hansmann,1985). 예를들면 모든 문화예술단체, 재단, 양로시설, 연구소, 종교단체, 각종 직업협회 및 이익집단이 이러한 비영리범주에 속한다.

활의 공간에서 각 개인이 가장 적합한 평생학습방법을 이용해가면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마을전체를 종합적인 학습공간과 기회로 제공하는 마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블루워터 학습원(Bluewater Learningshop)과 일본 가케가와시의 생애학습운동에서 평생교육의 다자간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

영국의 블루워터 학습원은 고용처(Employment Service)와 North Kent College에 의해 운영되며 지역주민의 고용과 훈련을 지원하는 중심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소매업종사자의 고용과 직원들의 전직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학습원은 소매업과 다른 직원들의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배분 및 소매분야의 산업대학의 학습과 역할도 한다. 그 결과 학습원은 1,000명 이상의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600명 이상이 학습프로그램에 등록, 2회에 걸친 가족학습 행사에 300명 이상이 참여, 2회에 걸친 직업알선행사에 40명의 업체가 참여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1: 85).

일본의 가케가와시 생애학습운동은 1970년대 말 시장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운동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전략과 방법을 택하였다. 가케가와시의 생애학습프로그램은 10년 단위로 평생학습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20세에서 90세까지의 성인식, 미국의 오레곤주 유지시에 농가를 사서 1년에 두 차례 각각 25명의 초·중·고생이 2주일 동안 홈스테이(home stay)를 하면서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는 국제화 프로그램과 동·통

·반 별로 시장이나 공무원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시민총대회시스템, 그리고 시화(市花) 100만 그루 심기운동 등이 있다. 생애학습도시 선언이후 지역경제효과가 파생되었으며 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윤병준, 2000).

#### IV. 한국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와 활성화 방안

##### 1. 한국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현황

한국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위에서 제시한 지역 연결망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학교간 관계 유형인 학점교류제와 학점은행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학점 교류제는 1972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의 대학원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간에 대학원수준에서 매학기 6학점 이내를, 숙명여대와 홍익대도 대학원간 학점교류제를 도입하였다. 대학간 학점교류는 199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되어 국내대학은 물론 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학점은행제는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 3월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과 2001년 6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원격교육과 국가 공인자격의 학점인정도 가능케 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화생에게 학력 및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학점은행제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학점은행제 추진경과

· 1998.3 : 6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274개 학습과목을 시범적으로 운영
· 1999.8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34명, 학사학위 25명, 전문학사학위 9명
· 2000.2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650명, 학사학위 111명, 전문학사학위 539명
· 2000.3 : 323개 교육훈련기관, 4,417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1.2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1,729명, 학사학위 267명, 전문학사학위 1,462명 (학점은행제에 의한 총 학사학위 546명, 총 전문학사학위 2,237명)
· 2001.3 : 369개 평가인정기관 6,465개 학습과목으로 평가인정 확대

둘째, 우리나라의 학교주도 교육정책은 학교 교육과 민간기업간 네트워크화 부재현상을 초래케 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교육과 민간기업 네트워크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하고 인적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02년 현재 약 13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보육센터(BI)는 60개소, 신기술 창업보육센터(TBI)는 41개소,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는 22개소,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지원센터는 16개소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인지역이 41개소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부산 14개소, 광주·대전·전북·경남에 각각 10개소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테크노 파크 조성은 1997년 12월 착수되어 1997년 12월에 송도, 안산, 충남, 광주·전남, 대구, 경북지역 등 6개의 테크노파크를 선정하여 추진중이며, 2002년 현재 까지 포항과 부산에서 추가적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표 2> 테크노 파크 조성계획 현황

지역	참여대학 및 기업	위치	중점분야
대구	6개 대학과 82개 기업	경북대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인천	2개 대학과 100개 기업	송도지역	정밀기계부품, 소재
광주 전남	7개 대학 245개 기업	광주시대	정보통신, 생명공학, 정밀기계
경기	6개 대학과 115개 기업	안산시내 3만평	전자부품, 정보통신
충남	2개 대학	천안시 안서동 20만평	영상, 생명공학, 자동차
경북	20개 대학 132개 기업	영남대	자동차, 정보통신

자료 : 박재룡 외(1999).

셋째, 우리나라 지역주민과 학교간 관계의 대표적인 유형은 평생교육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원의 경우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대학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대학평생교육 시설 및 신고제가 보고제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학점은행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대학평생교육이 크게 발전하였다. 2001년 4월 현재 4년제 대학 166개교, 전문대학 108개교, 기타학교 1개교 등 총 289개교가 평생교육을 두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수는 4년제 대학 174개, 전문대학 109개, 기타학교 16개 총 299개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었다(교육부, 2002: 19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생교육원은 수강생들의 학습비를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교육이 상품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구 분	대상 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설치현황			
		설치 학교	평생 교육원	설치 과정수	교육 인원
일반대학교	162	133	141(87.0)	4,239	234,816
산업대학교	19	16	16	132	4,485
교육대학교	11	10	10	98	3,475
대학원대학교	18	6	6	31	1,000
방송통신대학교	1	1	1	7	6,000
전문대학	158	108	109	1,616	64,158
기타(기능, 각종)	28	15	16	232	6,246
합 계	397	289	299	6,355	320,180

출처 : 교육부(2002: 194).

넷째, 우리나라 지역주민과 민간기업간 관계의 대표적인 유형은 대중매체 부설 문화센터,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를 들 수 있다. 대중매체 부설 문화센터는 주로 신문사와 방송국 부설 문화센터를 들 수 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매체기관은 60개의 신문사·통신사와 94개 방송사 그리고 106개 케이블 텔레비전 등이 있다. 한편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의 대표적인 기관은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들 수 있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고객이나 잠재적인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문화센터는 동방프라자 문화교실을 출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적 팽창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잠시 주춤하였다가 1990년 후반, 경쟁력 있는 백화점 마케팅차원의 프로그램 기획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백화점 문화센터는 2002년 현재 전국적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백화점 수만큼이나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다자간 관계의 대표적인 형태인 평생교육도시 만들기를 살펴보면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한 대전유성구, 경기광명시, 전북진안군 등이 있다. 대전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 첨단과학산업단지, 500여개의 벤처기업, 엑스포공원 등 대덕밸리를 형성하고 있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정보가 공유·교류되는 '만인을 위한 평생학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경기광명시는 1999년 3월 9일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처음으로 선언하였다. 학습도시 선언과 함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센터는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및 시민운동을 하나의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있다. 전북진안군은 '진안인은 평생학습인'이라는 모토아래 3만 4천여명의 군민들을 평생학습장으로 끌어들이며 군민모두가 평생학습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교육부, 2002: 70~74).

## 2. 한국 평생교육네트워크의 활성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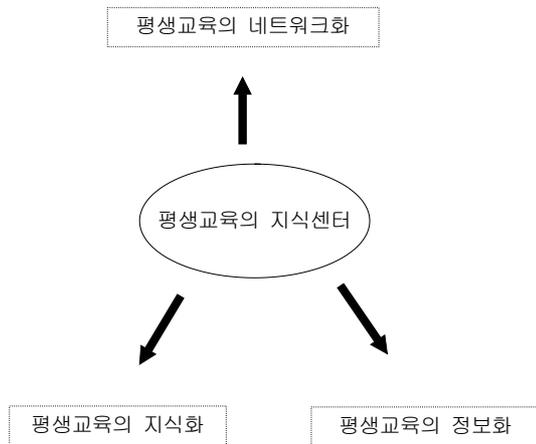
학교교육영역의 활동만으로 날로 다양화되는 교육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지역주민,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상호간의 연계는 이들 주체간의 기술지식, 물적자

원, 인적자원의 특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유형의 평생교육 연결망에 따라 향후 한국 평생교육의 역할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지식센터를 위한 평생교육의 활성화이다. 지식센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하부구조의 구성요소로서 공·사 부문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연구개발 등 과학적·기술적 수단들을 공간적으로 한곳에 집중시킨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센터의 일반적 개념을 평생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평생교육의 지식센터는 지역발전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전략적 수단 및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지식센터란 새로운 평생교육기관이 지역에 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 및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할 수 있는 성장센터로서 평생교육 행위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연계되어 평생교육의 네트워크화, 지식화, 정보화 등 시너지(synergy)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의 활성화이다. 인적자원개발이란 인적자본의 형성과정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이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지식, 기능, 능력 및 속성이 개인에게 체현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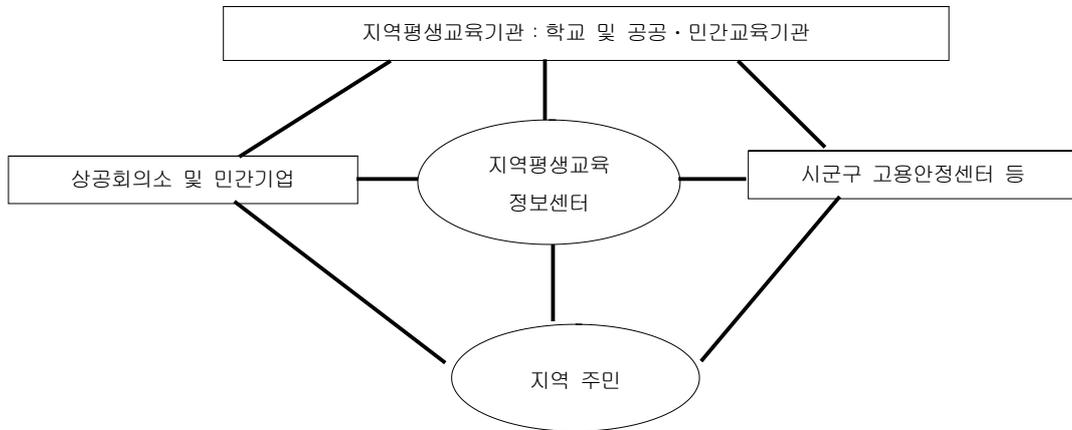
이러한 인적자본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평생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시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sup>5)</sup>인 행위자간 연결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sup>6)</sup>는 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가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상공회의소 및 민간단체, 시·군·구 고용안정센터와 해당 지역주민간 상호접촉기회 및 정보공유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뿐만 아니라 직업탐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건설적인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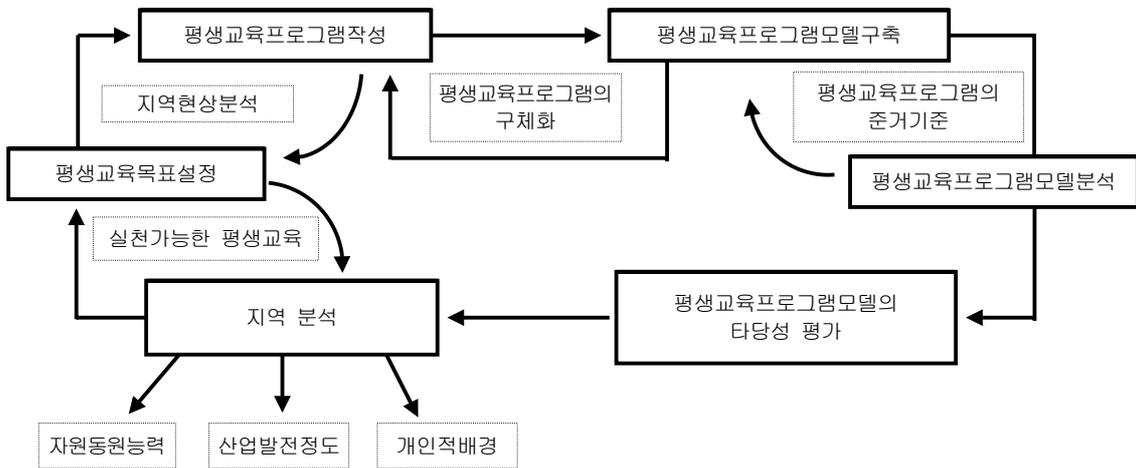
〈그림 2〉 평생교육의 지식센터

5) 사회경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도구로서 경제학자가 물질적 자본과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면, 사회학자들은 사람들간의 관계에 배태된 자본 즉 사회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 자본과 인적자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규범, 관습, 제도, 인간간 네트워크 등을 배경으로 한 공동체적 연대, 사회적 신뢰, 참여, 투명성, 공동체적 결집과 협력 등을 촉진하는 인간관계양식이다(곽병선, 2001: 97).

6)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국가 평생교육체제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평생교육법에 의해 국가 지정된 지역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이다. 따라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유·초·중·고·대학의 학교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등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등의 수평적 통합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국가 평생교육 기반구축의 중심체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림 3〉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정보망



〈그림 4〉 지역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구성도

셋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구축이다. 지역사회는 나름대로의 고유성을 갖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동원능력, 지역산업 발전정도, 인구구성비와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그림 4〉와 같은 절차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4〉를 보면, 여섯 단계의 핵심이 피드백(feedback) 시스템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은 마치 물 흐르듯이 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단계를 분석하다보면 뒤의 단계에서 다시금 앞의 단계로 환류해서 이전 단계의 오류를 수정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다.

결국, 평생교육 활성화의 최종 지향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삶의 질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새로운 교육적 필요가 요구

되고 이것이 충족될 때 비로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평생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 V. 연구의 함의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환경이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민간기업, 지역주민간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간의 긴밀한 연결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본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협조하고 협력하는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자체역량 및 고유성, 자율과 자치, 상호협력과 조정, 다양성, 의사소통 등과 같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주민, 민간기업을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자간 네트워크 활성화는 인적자원개발에 매우 중요한 촉매작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생교육은 여전히 학교교육의 역할 강조와 민간기업의 재정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어서 제도적 문제와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역할, 지역주민의 역할, 민간기업의 역할 및 관계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은 채 평생교육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생교육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화는 평생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다. 즉 구성원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 학교교육 위주의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체들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인 지역네트워크는 교육기관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된 주체간의 네트워킹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활성화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 민간기업,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평생교육기관의 대책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평생교육의 행위자를 학교, 민간기업, 지역주민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모든 행위자를 망라하여 고찰하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후속연구에서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곽병선, 2001, "인적자원관리분야: 인적자원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행정연구원.
- 교육부, 2002, 『평생교육백서』.
- 김봉익, 2002, "고령화사회, 이렇게 대비하자", 『나라경제』, 제142호.
- 김중서·황종건·김신일·한승희, 2000, 『평생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상필, 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사례연구", 『한국행정정보』, 제34권 2

- 호, 서울: 한국행정학회.
- 박재룡·박용규·송영필, 1999, 『IMF 시대의 지방침단산업단지 개발효율화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오덕성 & I. Masser, 1998, 『하이테크센터와 지역혁신: 영국·독일·일본·한국의 사례』, 산업자원부.
- 윤병준, 2000, “경기도 광명시 전국최초 평생교육도시선언”, 『지방행정』, 제556호, 대한지방공제회.
- 이광희, 2000,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센터의 확산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연구』, 서울: 서울시립대학.
- 이성만, 2000, “지역기술혁신 참여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수, 1998, “뉴질랜드의 학점은행제”, 『교육개발』, 114.
- 장지연·호정화, 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제2권 2호,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장진호, 1985,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 대사출판사.
- 정광섭·김상돈, 2001, 『21세기 직업구조론』, 서울: 대사출판사.
- 최운실, 1990,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 과학교육사.
- 최항석, 2000,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ANDRAGOGY TODAY』, 서울: 한국성인교육학회.
- 하혜영, 2002,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시민정신과 민주행정』, 서울: 한국행정학회.
- 한국교육개발원, 2001,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 홍기형·이화정·변종임, 2001, 『평생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황종건, 1992, “사회교육체계의 재정립”, 『한국교육의 새로운 선택』, 21세기정책연구원.
- 文部省生涯學習局生涯學習振興課, 1994, “縣民カレッジにおける學習成果の評價について”, 社會教育.
- Conle, A. J., 1957, *How the Age Distribution of a Human Population is Determined*, New York: The Biological Laboratory.
- Jessop, Bob, 1998, “The Rise of Governance and The Risk of Failure: The Case of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55.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구승희역,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Hansmann, Henry, 1985, “The Effect of Tax-Exemption and Other Factors on Competition between Nonprofit and For-profit Enterprise”, *Program on Non-Profit Organizations*, Working Paper 65, Yale University.
- Lengrand, Paul, 1975,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London: The UNESCO Press.
- Dave, R. H., 1973, *Life-long Education and School Curriculum*, Institute for Education.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niversity of Michigan Bulletin, 1996~1997, Vol. 25, No. 8.

원고접수일: 2004년 3월 10일  
최종원고채택일: 2004년 5월 17일